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0. 12. 15.(화) / 총 7매(본문3, 참고4)	
담당 부서	기업성장지원팀	담당자	• 팀장 정수호, 사무관 김혁, 주무관 김남우 사무관 박지은, 주무관 양두석, • ☎ (044) 201-3252, 3253, 3264, 3257	
보도일시		2020년 12월 1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15.(화) 15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교통 혁신기업의 든든한 성장도우미

제1회 「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」 개최

■ 김현미 장관, "기업 스케일업의 핵심은 공공수요 창출"

– "국토교통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우수기술을 발굴하고,
공공현장에 우선 적용하여 초기 수요를 창출할 것을 주문"

👉 참자고 있던 우수기술 발굴(약 40개), 공공현장 우선 적용

👉 6천억 원 규모의 저리자금 지원하는 「국토교통 상생협력대출」 시행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장관 주재로 12월 15일(화), 판교 기업성장 센터에서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제1회 '국토교통 기업 성장지원위원회'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○ 동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, 산·학·연 전문가가 함께 국토교통분야 혁신기업 지원 전반을 논의하는 국토교통부 최초의 회의체이다.

* 참석자 : 국토부 장관, 공공기관장(LH, 도로공사, 철도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공항공사, 인천공항공사, LX, KAIA, 건설연), 민간 전문가

□ 이날 회의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기준(50명)을 하회하는 20여명의 필요 최소한의 참석자만 초청, 이동동선을 통제하는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되었다.

□ 김현미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,

- 최근 비대면·디지털 경제로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, 국토교통 산업은 위기와 동시에 다양한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며,
 -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고,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“혁신기업을 육성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- 특히, 기업 스케일업의 핵심은 “우수기술의 공공현장 적용”을 통해 “초기 수요를 창출”하고, 판로를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며,
 - 기술검증 역량과 구매력이 있는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우수기술을 발굴하고, 공공현장에 적용할 것을 주문하였다.
 - 이와 함께, 국토교통 산업에 우수 인력과 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.

□ 이날 회의는 「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 정책방향」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수요 창출 등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공공기관, 민간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

□ 우선,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기업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해 직접 정책수단을 확충(참고1)하고, 10대 중점 육성분야*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스마트시티, 그린리모델링, 자율주행차, 드론, 자동차 애프터마켓, 스마트건설, 스마트물류, 프롭테크, 공간정보, 철도부품

- 특히, 우수기술이 사업모델로 꾸준히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판로개척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, △투자·금융, △창업지원, △R&D, △규제해소 등 분야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각 공공기관은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대상으로 검증절차를 거친 결과, '21년 현장에 적용할 약 40여개의 우수기술을 발굴했다고 밝혔다. (참고2 시연회 우수기술)

○ 또한, 각 기관은 우수기술을 매칭하기 위한 내부 기술마켓 구축 계획을 밝히고, '21년 추진할 중소기업 중점 지원사업을 소개하였다.

□ 국토부 또한, 드론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 창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○ 내년부터 국토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드론 신규구매분(연 50여대) 전량을 국산만 구매할 계획(공공드론 국산비율: '19년 44%→'22년 64%)이며,

○ 그간 진행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중 엄선하여 5개의 우수기술*을 선정, 내년부터 지자체 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(총 600억 원 규모)이다.

* 스마트횡단보도, 스마트버스정류장, 스마트공유주차, 스마트가로등, 자율항행드론

□ 한편, 위원회 사전행사로 국토교통부와 7개 공공기관*, IBK기업은행이 약 6천억원 규모의 '국토교통 상생협력대출' 협약을 맺었다.

* LH, 도로공사, 철도공사, 철도공단, LX, 인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

○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예치한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각 분야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로, '21년 제도가 시행되면 약 3천여개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약 1~2%p 가량 낮은 금리*의 혜택을 받게 된다. ('21년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
○ 또한, △맞춤형 컨설팅*, △해외은행·바이어 매칭, 투자자 매칭 등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추가 혜택도 받을 수도 있다.

* 경영, 세무, 회계, M&A, 특허, R&D 지원 등 전문 컨설팅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업성장지원팀 김혁 사무관(☎ 044-201-325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추진배경

- 국토교통산업은 국가 경제(GDP의 17.9%)와 고용(일자리의 14.7%)의 큰 비중을 차지하나, 급변하는 사회·경제 환경으로 인해 성장세 정체
- 전통적인 건설·운송산업을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고,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 육성이 최우선 과제
 - 특히, 코로나19로 비대면·디지털 경제로의 산업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점 유망분야에 정부역량(기업지원책)을 집중할 필요

2.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방안

◇ 우수 혁신기술이 사업·수익모델로 꾸준히 연결될 수 있도록 “공공수요 창출”을 통한 판로개척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

◇ 혁신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△투자·금융, △창업 지원, △규제해소 등 종합 지원

☞ 10대 중점분야* 특화지원 병행으로 1,500개 우수기업 육성(~'25)

* ① 스마트시티, ② 디지털 트윈, ③ 스마트건설, ④ 녹색건축, ⑤ 프롭테크, ⑥ 스마트물류, ⑦ 자율주행차, ⑧ 드론, ⑨ 자동차 애프터마켓, ⑩ 철도부품

1 공공수요 창출 등 판로개척 지원

- (기업성장지원위원회) 우수기술 발굴 및 공공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경쟁의 場으로 우수기업-공공부문간 상생모델을 지속 발굴

* 반기별로 주택·도로·철도 등 분과별 우수기술 발굴/검증→현장 적용계획 발표

- (수요연계형 R&D) 중소기업 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해 시제품 제작, 검증 등을 지원하고, 공공수요와 연계한 R&D도 확대

- (혁신조달 패스트트랙) R&D 결과물, 정부인증 신기술을 혁신제품으로 지정, 지자체·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여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
- * 선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, 직접 수의계약 및 면책 가능
- (온라인 플랫폼) 우수기업 판로, 홍보를 위해 국토교통 IMP(Idea Market Place) 구축('21.3), 발주처·투자자와의 네트워크 지속 확대

2 중소벤처 투자·금융 지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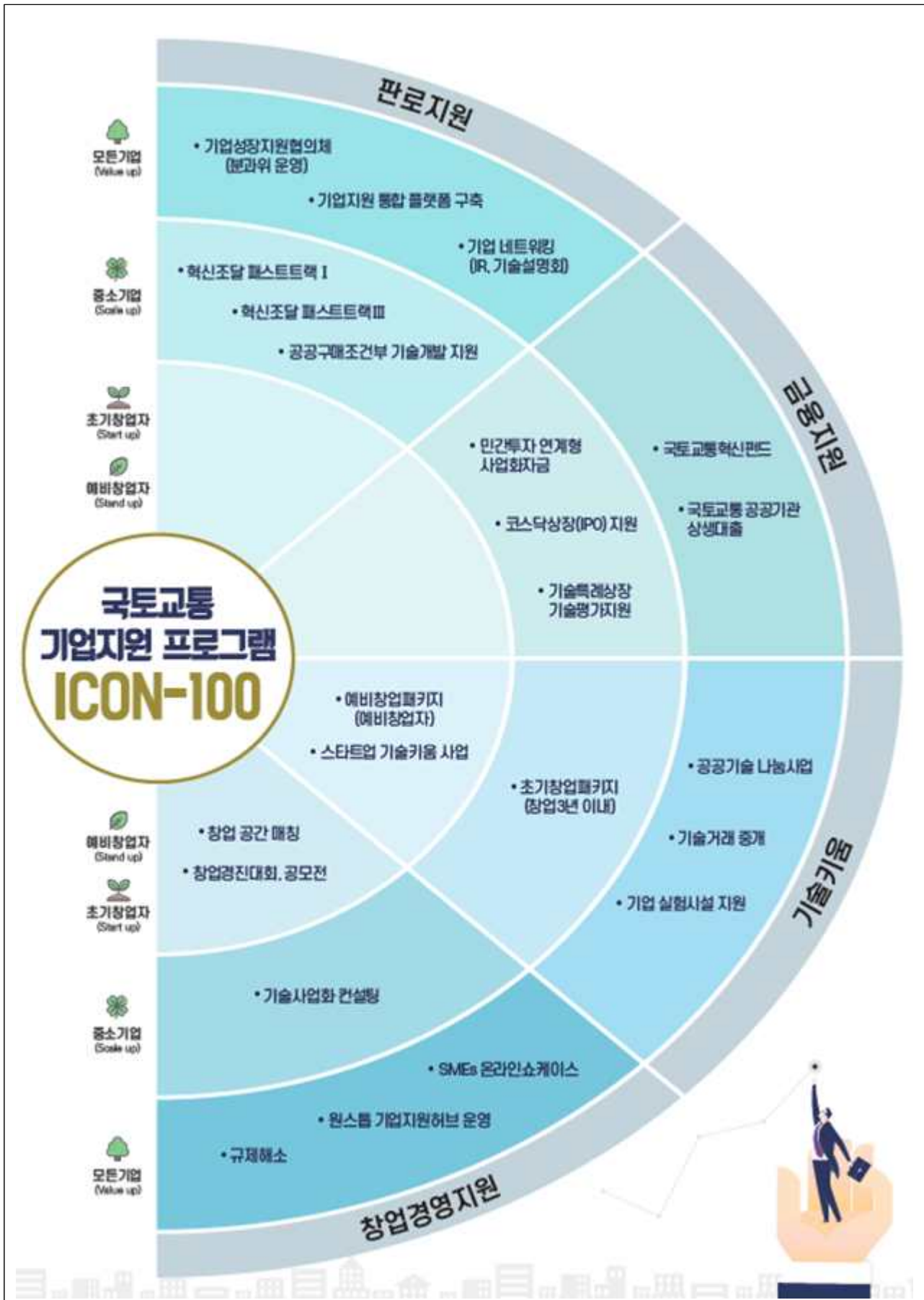
- (혁신펀드) 국토교통 유망분야에 본격 투자('21년 약 400억 원)하고, VC 등 민간투자자 대상으로 '투자도움협의체' 구성·운영
- (상생협력대출) 은행에 예치한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기반으로 유망기업에 저리 융자, 투자매칭, 컨설팅 등 지원('21년, 6천억 원)
- (민간투자 연계형 자금지원) 기술 역량이 검증된 기업*에 추가 기술개발, 인증 등 사업화 소과정을 지원하여 강소기업 육성
- * VC 등에서 최근 3년간 3억이상 투자 확정된 기업 대상으로 R&D 지원

3 국토교통 혁신 창업 지원

- (창업 확대) 중기부 창업지원패키지*에 10대 중점분야를 포함하고, 국토교통 K-스타트업 대전 개최('21.9) 등 기술기반 창업환경 조성
- *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내 기업 대상으로 창업자금, 컨설팅, 교육 등 지원
- (스타트업 기술 키움) 지재권 출원 단계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보유 기술 사업화 지원
- (공간 지원) 판교2밸리, 제주 등에 국토교통 기업을 위한 사업공간 및 판로개척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(가칭 '국토교통 벤처밸리')
- (규제/애로해소) 규제 샌드박스로 신속히 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,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규제 및 애로사항을 파악, 개선(규제혁신심의회)

※ 상기 공통 지원프로그램과 10대 중점 육성분야별 특화지원 병행

국토교통 중소벤처 성장 지원 프로그램(메뉴판)



참고2

「우수기술 시연회」 참석 기술 개요

◆ 각 분과위에서 검증한 총 40여개 우수기술 가운데,
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, 시의성 있는 7개 기술 시연

* 스마트시티는 '21년 솔루션 확산사업 2개 분야 실물을 시연

연번	기술 개요	특징	적용계획
1	공기정화기능을 갖춘 보도블럭 (데코페이브) 	- 빛 에너지로 반응하는 광촉매 작용으로 공기 중 질소산화물 제거⇒ 공기정화	< LH > 인천가정2 택지지구
2	열차 시설물 자동검측 시스템 (투아이시스) 	- 시설물 상태 데이터*를 실시간 수집, 시설물의 상태 진단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* 선로, 궤도, 전차선, 통신, 신호	< 코레일 > 고속선 1대, ITX-새마을 4대, 광역 전철선 4대
3	콘크리트로 채워진 강관을 이용한 터널 보강공법 (티에스테크) 	- 콘크리트를 충전한 지보재* 로 시공이 용이하고 안정성 및 누수방지 성능 우수 * 터널 굴착 직후 지반 변위를 억제하기 위한 보강재	< 도로공사 > 오송지선 고속도로
4	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이물질 자동탐지 시스템 (웨이브텍) 	- 국내최초 항공기 이동지역 이물질 자동탐지 원천기술	< 인천공항공사 > 인천공항 제4활주로 도입
5	디지털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시공관리 시스템 (무브먼츠) 	- 지하시설물 3차원 시공모델 구축으로 비용 절감, 공기 단축, 시공 정확도 향상	< LH > 부산에코델타 시티 3-3공구
6	스마트 드론 솔루션 (쿼터니언) 	- 국내최초 장거리 배송용 수소연료전지드론 을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	<지자체 30곳>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
7	스마트 버스정류장 (드웰링) 	- IoT 기반 스마트 클린 존 조성으로 깨끗한 공기, 친환경 에너지, 안전, 편의 (냉난방·안심벨·WiFi) 제공	